

■ 주요 뉴스: 중동발 인플레이션 등에 의한 금리 상승, 위험요인으로 대두

- 미국-이란, 종전 협상 난항 지속. 이스라엘-레바논, 휴전 연장에 합의(+45일)
- 미국-중국, 중국의 미국산 원유 구매 합의건에 대한 입장 불일치
- 미국 4월 산업생산(+0.7%), 견조한 기업투자 지속 시사
- 유럽중앙은행(ECB) 주요 인사, 신중한(지표의존적) 정책입장 유지
- 독일 정부, 인플레이션 및 공급망 차질에 의한 2분기 성장둔화 우려

■ 국제금융시장: 주가 하락[美 -1.2%], 달러화 강세[+0.5%], 금리 상승[美 +11bp]

- 주가: 미국 S&P500은 금리·유가 상승에 의해 위험선호가 약해지면서 하락
유로 Stoxx600은 독일(-2.1%)·이탈리아(-1.9%)를 중심으로 1.5% 하락
- 환율: 달러화지수는 연준 금리인상 가능성을 반영하면서 5일 연속 상승
유로화 및 엔화는 각각 0.4%, 0.2% 약세
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11bp 상승
독일(+13bp)·영국(+18bp)·이탈리아(+18bp) 등 유럽 금리는 큰 폭 상승

※ 뉴욕 1M NDF 증가 1496.9원(스왑포인트 감안 시 1498.2원, 0.2% 하락). 한국 CDS 보합

		5.15일	전일대비			5.15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7,408.5	-1.24%	국채 금리 10y	미국	4.59	+11bp
	유럽	606.92	-1.48%		독일	3.17	+13bp
	일본	61,409	-1.99%		일본	2.72	+9bp
	한국	7,493.2	-6.12%	CDS	한국	24	0bp
환율	달러지수	99.28	+0.47%	위험 지표	VIX	18.43	+6.78%
	유로화	1.1625	-0.38%		브렌트유	109.26	+3.35%
	엔화	158.74	-0.23%	원자재	금	4,540.1	-2.41%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600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환율은 +(-)는 강세(약세).

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중동발 인플레이션 등에 의한 금리 상승, 위험요인으로 대두

-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통화긴축 우려에 의해 장기금리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투자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
 - TS Lombard는 시장이 높은 변동성을 동반한 인플레이션 여건이 조성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글로벌 채권 리스크 프리미엄이 재조정되고 있다고 평가
 - DBS는 주요국 금리가 투자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정도로 높아졌다고 진단. State Street는 향후 주가 하락 요인으로 금리 변동성과 통화긴축 우려를 지목
- 중동발 에너지 가격 상승이 AI 관련 투자 위축, 재정건전성 악화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점증
 - Swissquote Bank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이 기대 인플레이션과 차입 비용을 높이면서 데이터센터 건설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며 이는 투자자들이 AI 실적 기대를 쫓으면서 무시해온 위험신호라고 경고
 - Jefferies는 향후 다수 국가들에서 연료 보조금 조치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재정적자 확대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미국-이란, 종전 협상 난항 지속

- 미국 트럼프 대통령, 더 이상 인내심을 발휘하지 않을 것이며 이란은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경고. 한편, 이란의 농축 우라늄 회수 문제에 대해서는 여론을 위한 홍보 효과를 제외하면 실효성이 없다고 언급하는 등 기존과 다소 상이한 입장을 표명
- 이란 아라그치 외무장관, 미국 측으로부터 협상을 계속할 의향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받았으나 미국이 진지한 자세를 보일 경우에만 협상에 나설 것이며, 이란은 전쟁 재개 가능성과 외교적 해결책 마련에 모두 대비하고 있다고 발언

■ 미국-중국, 중국의 미국산 원유 구매 합의건에 대한 입장 불일치

- 미국 에너지장관은 미국에서 수출되고 있는 원유 중 상당 부분이 중국으로 향할

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전일 트럼프 대통령(“중국이 미국산 원유 구매에 동의”)에 이어 마-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미국산 원유 구매에 동의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지속

- 반면, 중국 귀자쿤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글로벌 에너지 안보와 생산·공급망 안정을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언급하면서 미국산 원유 구매와 관련한 발언은 배제

■ 이스라엘-레바논 휴전 연장에 합의(+45일)

- 미국 국무부 대변인,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휴전을 45일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언급 (당초 휴전 만료일은 5.17일). 이스라엘 주미대사는 회담이 솔직하고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했고, 레바논 총리는 아랍 및 국제사회의 모든 지지가 결집되기를 희망한다고 발언

■ 미국 산업생산, 견조한 기업 투자에 의해 14개월래 최고치 기록

- 연준이 발표한 4월 산업생산 증가율은 +0.7%_{mom} 기록(25.2월 이후 최고). Bloomberg Economics는 2분기에도 감세 및 데이터센터 붐에 의해 견조한 기업 투자가 이어지고 있으나, 이중 생산비용 추가 상승에 대비한 비축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지적

■ 유럽중앙은행(ECB) 주요 인사, 신중한 정책입장 유지

- 부이치치 정책위원, ECB는 금리 조정의 필요성을 평가하기 위해 경제지표를 면밀히 주시해왔으며 6월 금리인상 여부 또한 향후 발표될 경제지표에 달려 있다고 언급

■ 독일 정부, 2분기 성장률 큰 폭 둔화 우려

- 연방 경제에너지부, 2분기 독일 경제는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차질이 기업·가계 심리를 압박하면서 1분기(+0.3%)보다 크게 둔화될 것이며, 추후 중동 전쟁이 진정 되더라도 에너지 가격과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더 오래 지속될 것으로 예상

■ 폴란드 인플레이션, 목표 상한에 근접

- 통계청, 소비자물가(CPI) 상승률이 3월 +3.0% → 4월 +3.2%로 가속화되었다고 발표. 중앙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동 전쟁 및 유가 상승에 의해 인플레이션이 목표 상한(3.5%)을 넘어설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금리인하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발표

주요 경제·금융 이벤트

- G7 재무장관·중앙은행총재, ▲글로벌 불균형 ▲무역갈등 ▲외환정책 논의. 미국 재무부, 3월 국제자본흐름(IC), 중국 국가통계국, 4월 소매판매·산업생산 발표(5.18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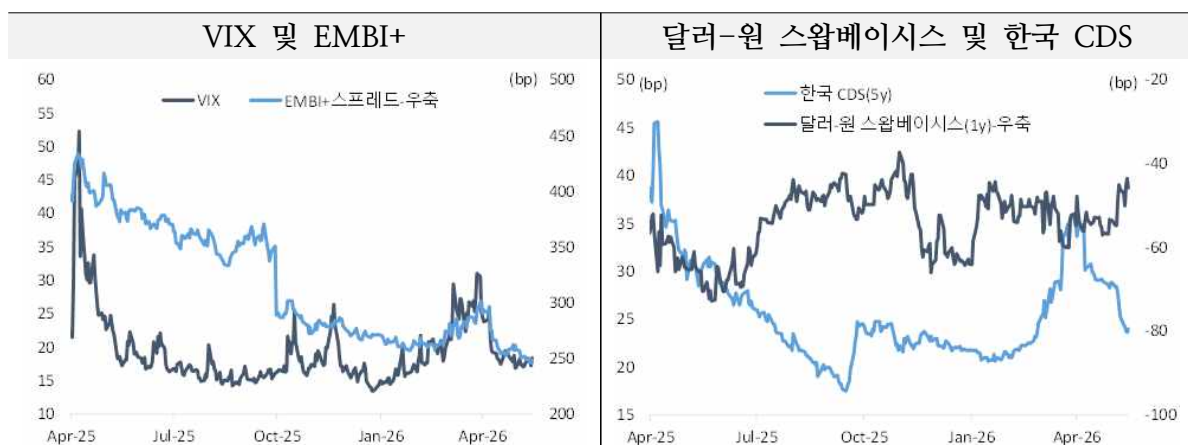
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11, E-mail swlee@kcif.or.kr